

흔들리는 민주당...정권교체 멀어져간다

경선 흥행 부진·투톱 퇴진론 갈등...내우외환 위기

정권교체를 향해 향해하던 민주당이 당내 내우외환이라는 폭풍우를 만나 좌초 위험에 빠졌다. <관련기사 3면>

우선,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흥행은 물론 최소한의 경선관리도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 누적투표율은 50%대밖에

안 된다. 경선 자체와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6·9 전당대회(73.4%)와 1·15전당대회(80.0%) 때 모바일경선 투표율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다. 당 지도부는 곳곳에서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불공정 의혹만 키웠다.

때문에 순회경선은 욕설과 비방, 몸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9일 대전 경선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자 일부 비문(비문재인)주자 지지자들이 불병·달걀 등을 던졌다.

후보 간 경쟁도 '문 대 비문'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선 정국을 주도할 이슈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 공천현금 파문에 당 지도부와 의원, 특검과의 이틀이 계속 오르내린다. 야권 통합 후 한때 50%에 육박했던 당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다. 이렇다 보니 해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도부 백의종군, 당 체질 개선 등 해신요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현 지도부가 탄생할 때부터 예고된 위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지도부는 4·11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명숙 체제 대신 들어섰지만 문제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찬-박지원 담합' 논란으로부터 비롯됐다. 총선 패배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에 의해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당의 운영은 '친노(친노무현) 대 비노(비노무현)' 대결로 점철됐다. <2면에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업부지 43% 市에 기부하고 사업자는 골프장만 개장 운영

범원 어등산개발 강제조정 결정...시 수용여부 주목

골프장 선(先) 개장 허가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 법정공방으로 비화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가 전체 사업부지의 43% (35만6000평)와 골프장 운영수익의 3분의 1을 각각 광주시와 사회복·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0일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정현) 재판부가 최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사업자인 '주식회사 어등산리조트' 등 소송 당사자들에게 '강제조정결정'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조서에서 ▲(주)어등산리조트의 비용으로 매입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

부하고 ▲골프장(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9홀) 운영 순이익을 향후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 재단을 설립해 기부하도록 했다.

또 ▲유원지 조성사업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를 현재의 도시공사에서 '(주)어등산리조트'로 변경할 것 등도 함께 결정했다.

재판부가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결정한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는 골프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 82만3000평 가운데 43%다. 또 기부하도록 한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은 골프장 전체 운영수익의 3분의 1 규모다.

사업자 측은 재판부의 이번 강제조

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고 골프장만 개장,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애초 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 조성 없이 골프장만 우선 개장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이 광주시의 기존 방침을 뒤집을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골프장 개장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오는 1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안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가을별 고추 말리기

이 말린 고추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17.4도까지 떨어진 10일 영광군 백수읍 축동마을 앞에서 한 주민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23일 재개

광주지역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이 오는 23일(일요일)부터 재개된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할인점 등의 휴일 영업제한이 다시 이뤄짐에 따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10일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한 뒤 30일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영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이 오는 23일부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5개 자치구는 오는 22일까지 영업제한을 위한 사전 예정 처분,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문급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일기자 cki@

www.hpdynastycc.co.kr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4.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스코스 20번홀 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